

광주기독병원 파업 한달...시민 불편 가중

노사 임금협상 이전 팽팽...24개 병동 중 2개 폐쇄 등 운영 차질
환자도 지난해 절반 수준 받아...시민단체 “조속한 정상화” 촉구

광주기독병원이 파업 한달째를 맞았다. 병원측과 노조측은 수차례 협상 테이블을 열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 병원측은 파업에 따른 근무인력 부족으로 일부 병동을 폐쇄하고 환자를 되돌려보내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기독병원이 3·1운동부터 5·18민중항쟁까지 지역민과 애환을 함께한 지역 병원이었던 만큼 지역민을 위해 서라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6일 광주기독병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기독병원지부에 따르면 양측은 현재 임금 인상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기독병원은 공공의료원 공무원 임금 체계를 따르고 있다. 올해 임금은 2017년 공

무원 기본급의 91% 수준이다. 노조는 지난 6월 20일부터 8월 13일 7차례 걸친 2020년도 임금 협상에서 지급율의 9%를 인상한 공무원 기본급의 100%를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동결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찬반투표를 진행해 같은달 29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이후 의견이 첨예하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1.5%~3% 인상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했다. 병원은 1.5%, 노조는 3%를 주장하며 현재까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류서영 노조 사무장은 “기독병원은 적은 임금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고 수급이 어려운 편”이라며 “3% 인상안도 많지 않다. 노조는 인력 유출을 막아야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병원이 발전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병원 판결에 따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인력 충원, 근무복 개선, 야간 근무자 휴무 체계 마련 등도 요구하고 있다.

병원 측에서는 1.5% 임금인상안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4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올해부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 1%가 상승하고 자연승급분 2.3% 등을 고려하면 총 4.8%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독병원 관계자는 “1970년대 병원 규모를 확대하며 충원했던 인원들이 올해부터 대규모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어 평년 30억 원 수준이던 퇴직금이 올해부터는 60억원 이상으로 상승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근 3년간 기독병원은 2016년 33억원, 2017년 52억원, 2018년 6억원 등 경영적자를 내고 있어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파업이 장기화되며 병원 운영도 차질을 빚고 있다. 노조원 500여 명 중 응급실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200명이 파업에 참여하며 근무 인력 부족으로 24개 병동 중 2개 병동이 폐쇄됐고, 환자는 지난해 수준의 절반만 받고 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은 장기간 근무시간이 누적되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지난 22일 기독병원 이사장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남구 A교회와 지난 25일 병원장이 다니는 차평동 B교회 앞에서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하기도 했다. 이를 놓고 일부 시민 사이에는 “개인이 다니는 교회 인근까지 와서 집회를 벌이는 것은 너무하다”는 부정적 여론마저 일고 있다.

급기야 광주진보연대 등 5개 광주시민단체가 나서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호남 근대병원의 효시이자 3·1운동, 5·18 등 광주역사와 함께한 광주기독병원이 파업사태를 서둘러 끝내고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병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곡성 농장주 살해·유기범 2심도 징역 35년

곡성에서 농장주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태호)는 26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결박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피해 회복 등이 이뤄지지 않아 1심 때와 달라진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1시께 곡성군 한 폐교 인근에서 A(59)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A씨의 농장에 찾아가 고철 가격을 흥정하다가 말다툼을 벌이고 농장 창고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피를 흘리는 A씨를 차에 강제로 태워 협박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목 졸라 살해했으며 통장에서 예금 1200만원을 빼냈다.

A씨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예금을 인출한 김씨의 행방을 추적해 검거했으며 범행 닷새 만인 지난 2월 20일 저수지에서 통에 담겨 유기된 시신을 발견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인 잔혹 살해 50대 징역 25년 선고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훼손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남원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B(여·42)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가학적인 방법으로 훼손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절한 B씨를 인근 모텔로 옮겼으나 B씨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인 행위를 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관급공사 청탁’ 뇌물 준 화순군산림조합장 징역 2년

관급공사 청탁을 위해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순군산림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진환)은 26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산림조합장 A씨(63)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690만원, 추징금 26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에 준하는 조합 임원 신분임에도 조합 비자금 조성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으며 직원들에게 인사 청탁성 뇌물을 받았으며, 돈을 받은 뒤 실제 일부 인사가 승진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조합 직자를 해소하고자 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화순군이 발주한 수만 리 생태숲 공원 공사 등과 관련해 화순군 공무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조합 사업비를 업체에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회수에 비자금 2억2900만원을 조성한 혐의(산림조합법 위반)와 2016년 12월~지난해 8월 인사 청탁을 받고 6명에게 269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홀로 운동하던 여성 추행·폭행하고 도주한 20대 ‘덜미’

○·광주 도심 한 대학교 운동장에서 홀로 운동중이던 여성을 추행·폭행하고 달아난 20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강제추행징사 혐의로 경찰서행.

○·2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20)씨는 지난 12일 새벽 2시10분께 광주시 북구 풍향동 광주교대 운동장에서 운동 중이던 20대 여성 B씨에게 몰래 접근해 뒤에서 끌어안는 등 추행을 하고, 이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는 B씨의 목과 얼굴 등을 폭행한 뒤 B씨의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달아났다는 것

○·경찰조사에서 A씨는 “당시 대학교 운동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B씨를 추행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홈플러스 온라인몰 고객

4만9천명 정보 유출 조사

홈플러스의 온라인몰 고객 4만9000명의 개인정보가 1년에 걸쳐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상의 특정인이 2017년 10월 17일부터 지난해 10월 1일까지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4만9000명의 계정으로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 목적은 ‘포인트 탈취’로 알려졌다며, 방통위는 해커로 추정되는 이가 홈플러스 가입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취득해 부정 로그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전날 KISA와 함께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변 의원이 전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일 한 고객이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았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 의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지 몇새가 지났음에도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과 포인트 탈취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

홈플러스는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으며 이를 은폐한 적이 없다”며 “사건 인지 후 KISA에 신고했고 피해 고객에게는 KISA 신고 당일 비밀번호를 즉시 초기화하라고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로 개별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검찰·언론개혁 촉구 광주·전남 작가회의 고문단 등 지역 예술계와 시민단체, 교수 연구자 등은 26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원전 건물 공극 94%가 한빛원전

원전 건물에서 발견된 공극(孔隙)의 대다수가 영광 한빛원전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원전 격납건물 공극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

일 기준 전국의 원전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은 총 295개다.

이 가운데 한빛원전에서 발견된 공극은 278개(1호기 14개·2호기 18개·3호기 124개·4호기 121개·6호기 1개)로 94%를 차지하고 있다.

26일 현재 한빛원전 6호기 가운데 1호

기와 3호기·4호기는 계획예방정비가 진행되면서 가동을 멈춘 상황이다.

고리 4호기는 10개, 한울 3호기는 4개, 한울 1호기는 3개의 공극이 나왔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2017년 5월 한빛원전에서 처음 공극이 발견됐고 먼저 정비를 시작해 다른 원전에 비해 공극 수가 많은 것이다”며 “한빛원전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652

68247581

251649783

130758492

246371280

462810973

576214302

691749809

77611002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강선 눈도양빌딩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